



KIA 하루만에 다시 7위로

삼성에 5-6 역전패 ... 순위 바뀌 헥터 삼성전 악몽 재현...10승 무산 한승택, 개인 첫 만루홈런 빛바래

4연승에 실패한 '호랑이 군단'이 하루 만에 6위 자리를 내줬다.

KIA 타이거즈가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헥터의 부진 속에 5-6 역전패를 기록했다. 전날 3연승을 달리며 삼성을 7위로 내리고, 6위로 올라섰던 KIA는 이날 패배로 다시 순위를 맞바꿨다.

헥터의 삼성전 악몽이 재연됐다. 지난 5월 13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3이닝 9피안타 2사사구 2탈삼진 7실점(6자책점)으로 고개를 숙였던 헥터가 이번에도 만루포를 허용하는 등 5이닝 6실점을 하고 물러났다. 앞선 등판은 KIA의 8-7 역전쇼와 함께 해피 엔

딩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번 결과는 달랐다. 한승택의 개인 첫 만루홈런의 여운을 살리지 못한 게 특히 아쉬웠다.

1회 양 팀 선발 헥터와 백정현이 1회를 삼자범퇴로 마무리했다. 2회초 헥터가 1사에서 박찬욱에게 이날 첫 안타를 허용했지만 강민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3루수 플라이로 이닝을 종료시켰다.

이어진 말 공격에서 안치홍과 이범호가 2루수 플라이와 중견수 플라이로 몰려나면서 2회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명기의 우전안타를 시작으로 홍재호와 유재신이 연달아 볼넷을 골라내면서 만루를 채웠다. 그리고 9번 타자 겸 포수로 선발 출장한 한승택이 첫 타석을 맞았다. 조구 볼을 골라낸 한승택은 낮게 들어온 140km짜리 직구를 걸어 올려 좌측 담장을 넘겼다. 한승택의 개인 통산 3호 홈런이자 첫 만루홈런이었다.

하위타선의 반란으로 대거 4점을 뺏으며 분위기를 가져왔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4점의 리드를 안은 헥터가 첫 타자 손주인을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3회를 시작했다. 김상수에게 좌전안타를 내줬지만, 박해민을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우면서 투 아웃. 하지만 남은 원아웃으로 가는 길이 멀었다.

구자욱에게 우전안타, 김현곤에게 볼넷을 허용하면서 2사 만루 위기를 자초한 헥터는 이원석에게 좌전 안타로 2실점을 했다. 그리고 다시 박찬욱을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만루가 됐고, 이번에는 큰 것 한방을 허용했다.

강민호에게 던진 2구째 슬라이더가 좌중월 담장을 넘어가면서 역전 만루포가 됐다.

헥터는 이후 5회까지 책임지고 물러났지만 이미 흐름은 기울었다. KIA는 6회말 2사에서 유재신의 3루타에 이은 대타 정성훈의 우중간 2루타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치면서 5-6으로 졌다.

이날 패배로 KIA는 삼성에 0.5게임 차 뒤진 7위가 됐고, 5위 LG와는 2.5경기 차로 벌어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0 '아흡수' 버나디나, 홈런보다 안타부터

덕아웃 T 특특

▲아 이게 부담감이구나 = 앞선 두 번의 아시안 게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양현종의 부담감이었다. KIA 에이스 양현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도 에이스로 활약하며 금메달을 견인했다. 양현종은 2010년 광주주, 2014년 인천 대회에도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에이스라는 막중한 위치에서 치른 만큼 느낌이 남달랐다. 양현종은 "이게 부담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어린 후배들을 위해 선봉도 해주고 싶었고, 창피한 행동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점점 팀이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 후에 평소처럼 편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회 이후 첫 등판이었던 지난 8일 삼성전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12승을 올린 양현종은 "경기를 하고 와서 감각은 괜찮았다. 1회 부담이 됐었는데 힘도 있었고 타자들이 잘 해줬다.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다"며 "우리 팀의 1승 1승이 중요하다. 우리 선수들도 1승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무조건 가을 잔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안타가 나와야 홈런이 나오지 = '아흡수'에 빠진 버나디나가 안타까운 사령탑이다. 버나디나는 2

년 연속 '20(홈런)-20(도루)'에 홈런 하나를 남겨두고 있다. 도루는 27개로 넘겨주지만 지난 8월 12일 SK전 이후 홈런이 나오지 않으면서 기록 달성이 미뤄지고 있다. 취재진으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요즘 마음이 급한지 퍼올리고 있다. 안타가 나와야 홈런이 나오는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마음 급한 버나디나와 달리 "홈런 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최형우는 지난 8일 6년 연속 20홈런이라는 위업을 이뤘다. '국민 타자' 이승엽에 이어 KBO리그 통산 두 번째 기록. 김 감독은 "안타보다 홈런이 많이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멀리 보내는 것과 세게 치는 것은 다르다. 안타를 생각하고 치다보면 좋은 타구가 홈런이 되는 것이다"며 "안 아프고 꾸준히 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최형우의 기록을 축하했다. 최형우는 앞선 7일에는 통산 10번째 350 2루타의 주인공도 됐다.

▲그때 홈런왕이셨어 = 9일 훈련 시간에 한승택과 김기태 감독의 특별 미팅이 진행됐다. 김 감독은 야구 선배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승택을 격려했고, 마침 김재현 SPOTV 해설위원도 취재를 위해 덕아웃을 찾으면서 두 사람의 대화에 함께 했다. 대화가 끝난 뒤 김 감독은 김재현 위원을 가리키며 "누군지 알지? 고등학생이

막 와서 20-20을 했었다. 얼마나 대단하냐"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김 위원은 "그해 홈런왕이 김기태 감독님이셨다. 25개의 홈런을 치셨다"고 미소를 지었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두 타격의 대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한승택은 이날 2회 2사 만루에서 좌측 담장을 넘기며, 개인 첫 만루 홈런을 기록했다.

▲팬층은지 물어봐 줘요 = 9일 훈련이 끝난 뒤 김중국 주루 코치가 취재진을 보고 "(신)범수 팬층은지 물어봐주세요. 흠 많이 먹었어"라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김상훈 배터리 코치도 "경기장에 흠 다시 채웠다"는 농담을 하며 신범수를 놀렸다. 상황은 전날 7회말에 일어났다. 2사 1루에서 김민식의 대타로 들어간 신범수는 좌중간으로 공을 보내며 2루 베이스를 넘겼다. 그리고 3루까지 내달린 신범수는 베이스를 앞에 두고 넘어지면서 턱을 바닥에 부딪혔다. 공보다 손이 빨라 1타점 3루타가 기록됐지만 잠시 턱 상태를 살펴보고 경기가 중단됐다. 신범수는 "영상을 다시 보니까 다리가 풀린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아니다. 슬라이딩하려고 뒷발을 찼는데 잘 미끄러지지 않았다"며 속سر러워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챔피언스필드 투어 참가자 여기 모여라

KIA, 10일부터 선착순 모집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투어' 제14기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챔피언스 필드 투어는 경기장 및 선수단 시설을 둘러본 뒤 경기까지 관람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번 투어는 오는 15일 SK전에 맞춰 진행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참가자에게는 사인볼, 마스크 트블록, 예고백, 클레퍼 등 다양한 기념품이 주어진다.

이번 투어는 그라운드 및 라커룸(원정팀) 체험, 실내연습장 및 웨이트 트레이닝실 견학, 선수단 훈련관전, 경기 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라커룸과 실내연습장, 웨이트 트레

닝실, 그라운드 등 선수단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다. 또 투어가 끝난 뒤에는 3루측 K7석에서 야구 관람도 하게 된다.

이번 투어 참가자 모집은 10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이뤄지며, 선착순 30명이다. (문의 마케팅팀 070-7686-8043)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야구(baseball)'와 '문화(culture)'를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담은 '베이스컬(Basecu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

무등리그 8강 대진 완성

백구클럽 기권승 ... 역대 챔피언 맞대결은 '카멋진남' 승

무등리그 정상에 도전할 8개 팀이 가려졌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8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기 토너먼트 BJ저서와 액터스 경기. 1회말 볼넷으로 진루한 액터스 이재열(앞)이 김영민 타석때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무등리그 16강전으로 전개된 두 번째 승부에서 태평법률사무소, BJ 저저서, 백구클럽, 카멋진남이 승리팀이 되면서 8강에 진출했다.

앞서 대회가 시작한 지난 2일에는 개막전 승리를 챙긴 쏘울스토리에 이어 아웃도어모터스 포비스와 타요바리스타즈, 그린요양병원이 무등리그 8강행을 확정했다.

2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무등기에 참가하고 있는 태평법률사무소는 패밀리를 8-0, 5회 볼드게임 승으로 제압하고 '가을잔치'를 이어갔다. 선발 정승환이 무실점으로 패밀리의 공세를 막으면서 승리 투수가 됐다.

화순리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BJ 저저서는 무등기 역대 우승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액터스를

꺾고, 돌풍을 일으켰다. 초반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됐지만 BJ 저저서는 3-2로 앞선 6회초 공격에서 대거 8점을 뺏아내면서 승부를 마무리했다.

세진야구단과 첫 대결이 예정됐었던 백구클럽은 상대의 기권으로 힘들이지 않고 16강 관문을 통과했다.

이날 마지막 경기는 2015년 광일리그 우승을 차지한 금호 허리케인과 2016년 광일리그 우승팀 카멋진남의 '역대 챔피언' 맞대결로 전개됐다.

또 다른 우승에 도전할 기회는 카멋진남에게 돌아갔다. 1회 선취점을 만든 카멋진남은 2-0으로 앞서 4회 3점을 보태면서 흐름을 가져왔다. 그리고 시간제한으로 6회 6-2 승리를 확정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체육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아름다운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무등기와 함께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무등기 2주차 전적 (무등리그 16강전)

◇1경기(5회 볼드승)
패밀리 00000-0
태평법률사무소 41003-8
▲승리투수: 정승환

◇2경기(6회 볼드승)
BJ 저저서 111008-11
액터스 101000-2
▲승리투수: 김길수

◇3경기(기권승)
세진야구단 0000000-0
백구클럽 1111111-7

◇4경기(6회 시간제한 승)
카멋진남 110301-6
금호허리케인 000101-2
▲승리투수: 김상수

"도루 성공" 9일 광주야구장에서 열린 제8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기 토너먼트 BJ저서와 액터스 경기. 1회말 볼넷으로 진루한 액터스 이재열(앞)이 김영민 타석때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